

##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현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공회라 김기만/하세련 김영중/이종문 김영삼 김외자 김정환/임영미 김진희 김춘화 김현구/서재희 김현욱 김한국/이오순 박부웅/최귀남 박순웅/이승애 박영숙 박희재 방복순 서진화/최봉순 석애자 신유진 윤 숙 윤조훈 이근자 이상아 이육남 이찬호 이태일/송백현 이한철/박희영 이항교 이형욱 임만순/서영숙 장윤주/김원진 전병규/이인숙 정기성/심순옥 정옥순 정은천 조규영/윤혜란 주경억/이경자 지옥분 천세력/영영분 최기훈/경계숙 최선미 최정희 추재호 / 43명

**☪ 선교현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기만 김영중/이종문 김병환/이영숙 김외자 김준구/이소는 김진희 김창길 김현욱 박춘자 방복순 배정철 서재희 윤 숙 이근자 이승애/박순웅 이찬호 이태일 이한철 이형욱 임영근 정경순 정기성/심순옥 정옥순 최기훈/경계숙 최봉순 최정희 / 26명

**☪ 감사현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래 문수경 이송이 김누리헌 김병환/이영숙 김연이 김현구/서재희 박금영 박부웅/최귀남 박종삼/이명원 박춘자 백경자 백성원/안지영 영영분 영영준/박진숙 이명희 이미자 이순철 이춘취 임만순 임영자 전병규/이인숙 정기성/심순옥 채영엽 천성현/고유림 최상길 현복자 황영옥 무 영 유초주부 영이유치부 / 31명

###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김영숙 김민성 김수현 김정훈 김준구 김준현 김지훈 김정숙 김춘화 김혜란 민옥희 박순자 박정숙 박희영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이경자 이기자 이설아 이소는 이승애 이육남 이인숙 임승주 장하람 전병규 정옥순 정혜지 주성락 최귀남 황영옥 김민혁 무 영 양일석 이노을 정승현 / 43명

### ☪ 월정현금

박춘자 / 1명

## 주간 성경연구

31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사도행전 23장 12절 ~ 22절		
월요일	사도행전 23장 23절 ~ 35절	목요일	사도행전 24장 24절 ~ 25장 5절
화요일	사도행전 24장 1절 ~ 9절	금요일	사도행전 25장 6절 ~ 12절
수요일	사도행전 24장 10절 ~ 23절	토요일	사도행전 25장 13절 ~ 27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환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전도사	이필래			
	주전임전도사	김두산			
찬양대	교육전도사	이송이 문수경			
	지위자	할렐루야	야: 김한나 시은·에덴: 최원지	훈산나: 김안나 엔젤: 이난수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강민주 김미희 이연정 공회라 정희연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정애슬 채종범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김정숙	이집트:	김신숙
		수리남:	안석철 이성옥	A X 국:	김해월
		미국:	김다니엘	A X 국:	이분옥
		미국:	최옥희	모잠비크: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국:	박영성 정세미	태국: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김홍기	A M A: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합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18. 07. 29. 주일 예배 설교

시편 88편 1~18절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	설교자 이진우 목사
--------------	----------------	------------

사람들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를 높이지만 사실은 가장 두려움이 많은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자연을 정복했고, 우주를 정복해 나가는 위대한 문명을 가진 인생들이라 해도 여전히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질병과 연약함과 경제와 자신의 삶에 막연한 미래와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 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을 먼저 체감한 시편의 기저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는,

-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병이 깊어지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큰 고통이 밀려오면 죽음이라는 공포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인 역시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문 5-6절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6~7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이다.(셀라)”** 시인은 이 두려움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깊은 웅덩이에 던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인을 강한 힘으로 누리고, 큰 파도를 일게 만드셔서 고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단언하여 선언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항의해 보기도 합니다. 자신이 죽는다면 찬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감탄합니다. **10-12절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혹은 죽은 자의 주를 찬송하리이까(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끊으신다면 무덤 속에 있는 자신에게서 다시는 찬송을 받으실 수 없지 않느냐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토록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부림치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죽음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다른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외롭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씩 나를 떠날 때도 고통스럽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 두고 떠나는 것 역시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바로 시인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인을 아는 사람들이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간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으니이다.”** 시인은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 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증한 것” 이란 히브리어 “토에보트” 로서 그 원형은 “토에바” 인데 이는 “혐오스러운 것, 꺼리는 것,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란 뜻입니다. 시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자, 미움을 받는 자, 꺼리는 존재가 되어 결국 그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치 나를 벌레 보듯이 하고, 나를 피하고 비난합니다. 한순간에 사람들이 시인을 버렸고, 하나님씩 그를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인에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들이 오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인이 지금 외롭기가 되었고,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시인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 두려움이 막지 못하는 기도
  - 시인은 죽음과 외로움이라는 두 가지 두려움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웅덩이와 가장 어두운 곳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가장 힘들고 외로운 가운데서도 가장 현명한 길을 찾아냈습니다. 어쩌면 그것 말고는 답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절망과 낙담 속에서, 곤란으로 말미암아 눈까지도 쇠하여지는 어려움 속에서 시인은 매일 주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9절에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니이다 어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니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작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마치 하스기아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듣고 벽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시인 역시 죽음과 외로움이라는 단단한 벽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비록 두려움의 원인은 모든 인생이 다 다를지라도 부르짖을 대상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4 - 31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2018. 08. 05.

# 오전예배

[1부] 오전 7시 사회: 배 경 철 장 로

[2부] 오전 9시 30분(로템나무) 인도: 이 진 우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묵 도 할렐루아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425(통217)장 다 같 이

(Praise)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통 성 기 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1부] 김 경 엽 집 사

(Prayer)

[3부] 배 경 철 장 로

성 경 봉 독 [1,3부] 사도행전 12장 1~12절(신약P.207) 박 순 자 권 사

(Scripture)

[2부] 히브리서 11장 1~12절(신약P.364)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같 이

(Anthem)

[3부] 은혜 알게 하소서(전선미)

할렐루아찬양대

설 교 [1,3부] 기도로 옥문을 열라 이 진 우 목 사

(Sermon)

[2부]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다

헌 금 봉 헌 [1,2,3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Offering)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369(통487)장 다 같 이

(Praise)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같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

묵 도

성 시 시편 31편 22절

간 구

찬 양 찬송가 341(통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기 도

성 경 봉 독 이사야 54장 11~17절(구약p.1034)

찬 양

설 교 고난 중에 경험하는 복

광 고

찬 양 찬송가 337(통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축 도

##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찬 양

기 도 [다음주:박순자권사]

성 경 봉 독 로마서 6장 4~11절(신약P.246)

설 교 믿음이란 무엇인가?

##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아유치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토요일 오후 6:00 로템나무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도특공대	목요일 오후 2:00 제1교육관
새벽기도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